

# 가축질병 없는 청정 남원을

거점소독장소 운영  
AI 특별방역기간 설정  
소독시설·백신 지원  
인수공통전염병 차단  
예찰 강화 등 만전

남원시가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없는 청정 남원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에도 단 한건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 청정 남원 축산을 지키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김제, 고창에 이어 충남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생석회, 소독약품 및 압돈 면역증강제를 공급하고, 긴급 예방백신 10만두 분량을 전 입원농가에 공급하여 일제접종을 완료하였다.

또한 거점소독장소 2개소와 축산관련시설의 소독시설 2개소 등 총 4개소의 소독시설을 현재까지 24시간 운영해 질병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시청 축산과에 가축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질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시는 구제역·AI 뿐만 아니라 기타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급진도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질병에 방울 백신 지원, 인수공통전염병 차단 농장 질병 예방 등 4대 중점사항을 정하여 선제적 축산 경영과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농가 자율소독강화를 위해서 6,300만원을 투입하여 소독시설 14대



축합공체육공원 거점소독 1차소 시연 소독

(누계 159대), 동물사체처리시설 2대(누계 18대)를 지원했다. 특히, 동물사체처리시설은 축사내에서 발생한 폐사가 축을 신속히 처리해 질병 확산 방지 뿐만 아니라 악취발생과 폐사축매몰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예방용 백신지원 사업에는 총 10억4,700만원이 지원되어 4대 주요축종에 예방백신 14종 2,620만9,000두를 총계, 추계 가축방역 사업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소 7종 49만4,000두, 닭 1종 2,520만두, 돼지 3종 47만두, 꿀벌 3종 4만5,000두)

남원축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인수공통전염병 차단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하여 관내 공수역사 5명, 방역본부 2명을 동원하여 검사 신청시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 이후 4년 동안 단 한건도 발병하지

않아 질병 완전 근절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검사를 확대한 소 결핵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당분간 추가 발생 즉시 살처분 및 이동제한을 통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질병방역을 사전차단하고 발병할 경우 신속히 근절하기 위해 읍면동 담당자 및 공수역사 등 가축질병예찰요원 30명이 매주 1회 이상 관내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예찰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남원축협 공동방제단 3개단도 매일 소규모 축산농가 및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는 축산농가 예산지원과 더불어 방역 미시시 능가 강력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폐지열병 미접종농가와 소독 미시시 능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차단도 방역사업 패널리 및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 내년 농식품사업 예산 1126억 신청

자율사업 28개 분야 557억 · 공공사업 18개 분야 569억

남원시는 남원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26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1126억원의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신청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조직,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신청 받은 결과 전년도 신청 예산 1049억원보다 77억원이 증가한 1126억원이 신청되었다.

신청액을 분야별로 보면 농업인이 시행하는 자율사업이 28개 분야 557

억원, 행정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18개 분야 569억원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후계농업인 등 농업전문인력양성 및 신기술보급과 경영 능력 향상에 322억원,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기반확충 및 농지규모화 추진에 469억원, 과수·원예의 고품질 생산과 조식료 생산·이용 및 축산경쟁력강화 등 원예 축산분야에 276억원, 입산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개선 및 고품질생산에 59억원 등이다.

남원시는 심의에 앞서 신청된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 검토

를 통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였고 이번 심의회를 통해 1,126억원의 최종 신청 예산을 제출할 계획이며,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으로 내년 정부예산으로 확정되면 2017년도에 사업 분야별로 시행하게 된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를 통해 신청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중앙부처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농업인의 소득 창출 및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 '장애인의 발' 콜택시 인기

현재 6대 운영 · 하루 평균 대당 10명 이용

남원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지난 2013년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시작, 지난해 2대를 추가 구입해 총 6대가 운영 중에 있다.

남원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하루 평균 대당 1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동반가족과 보호자의 이동의 편의 도모를 위한 휠체어 슬로프 차량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병원진료, 재활 프로그램 등 사회참여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보장구 이용자, 일시적 사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국경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08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남원시장이 고시한 택시요금의 50%이다.

이용방법은 1일 전까지 예약 신청해야 하며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 번호☎ 626-1911을 누른 후 목적지 신청을 하면 콜택시 차량이 신속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을 해준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운행 시간 확대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 봄철 산불예방 총력

5월15일까지 방지기간 지정

고창군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단 한건의 산불도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불 없는 해를 달성하기 위해 산불방지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봄철 산불예방기간 중 산불진문예방 진화대원 47명과 감시원 42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봄철 산불예방기간 동안 고창군 흥덕면 용만리 산불헬기 계류장에 전북도에서 임차한 헬기를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 및 초동진화 활동에 힘쓰고 있다.

선운산 방장산 등의 관내 11개 노선 65km의 주요 등산로에 입산통제구역이 지정고시되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또한 허가받지 않고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음식을 조리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산 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 군 홈페이지에서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 후 입산허가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산림 및 산림인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눈·발두림 소각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30% 이상이므로 발두림 및 농산폐기물 등은 합부로 소각하지 말고 읍면사무소에 공동소각 및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112(560-2801)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특별특리소

고창군, 한우명품화 협의회 개최

고창군이 한우산업 분야 추진방향 설정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한우명품화 사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26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위원장인 김상호 부군수와 고창부안축협 김대중 조합장, 고창한우협회 박서구 회장 등 한우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한우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개량사업 추진과 능가조식화 및 가공 유통시설 확충, 한우사업 발굴 및 고급육 생산, 한우농가 지원관리 및 질병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창 한우는 대부분이 영세농가이고 사유지 기반의 취약성으로 고급육 생산이 다소 늦어졌으나, 군은 등록 및 실험실사, 우량 정액 공급 등의 개량사업을 통한 고급육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우산업 활성화 및 브랜드 육성을 통한 안정적 소득기반 전략으로 2018년까지 43억8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7억7500만원을 투입해 고창 한우 명품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군은 앞으로 능력이 우수한 송아지를 지속적으로 확보·사육하고 고급육 출현률을 20% 이상 향상시켜 능가소독과 안정적 한우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호 부군수는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한우개량을 촉진하고 사유지 기반을 구축해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한성 고창 귀농귀촌협회장 재선

사단법인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 행사는 최근 우성빌딩 6층에서 박우정 고창군수와 이상호 군의장, 귀농귀촌인과 내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 회장으로 김한성 회장이 재선됐으며 신규 임원진 소개가 이어졌다.

김한성 회장은 "전국 귀농귀촌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내부적으로 귀농귀촌인이 단합하고 외부적으로 지역주민과 화합을 통해 더욱 발전된 협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고창으로 귀농한 한송호씨를 비롯한 3명이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 및 상장을 수여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노인사회활동 사업 실시

남원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2016년 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중에서 지난 2월1일부터 15일까지 95일간의 모집 공고기간을 거쳐 최종 선발하였다.

참여 인원은 1,649명으로 지난해 대비 36명의 참여자가 늘어난 수치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노케어를 비롯해 공공시설 지원봉사, 경륜전문 지원봉사, 취약계층 지원봉사 및 취창업 일자리 분야 등이며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은 주3일, 월30시간 정도의 참여로 월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선정 대상자들은 시설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 일자리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남원노인복지센터 등)으로 출근하여 일차리에 참여하게 된다.

노인 사회활동 사업추진 시 참여자들의 안전한 사업참여를 위해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한 후 일자리를 시작하며, 휴식(7~8월)에는 실내위주활동과 충분한 휴식 및 일자리시간 단축 등 참여자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